

6. 정복의 길 (369-390)

對馬島-筑紫-大和

古事記上卷 并序

臣安萬侶言 ... 寔知 懸鏡吐珠 而百王相續 嚙劍切蛇 以萬神蕃息與議議安河而平天下 論小濱而清國土是以 番仁岐命 初降于高千嶺 神倭天皇 經歷于秋津嶋 化熊出川 天劍獲於高倉 生尾遮徑 大鳥導於吉野 列儻攘賊 聞歌伏仇 卽覺夢而敬神祇 所以稱賢后 望烟而撫黎元 於今傳聖帝 定境開邦 制于近淡海 正姓撰氏 勒于遠飛鳥 古42

神功皇后 攝政 卅六年... 卽而儻人爾波移與卓淳人過古二人 遣于百濟國...時百濟肖古王 深之歡喜 而厚遇焉 仍以五色綵絹各一匹 及角弓箭 并鐵鋌四十枚...便復開寶藏 以示諸珍異 曰...欲貢貴國 不知道路有志無從...於是爾波移奉事而還告 ...便自卓淳還之也 上353

天降坐于竺紫日向之高千穗之久士 布流多氣 自久以下六字亦以音 故爾 天忍日命天津久米命二人 立御前而仕奉 故 其天忍日命 此者大伴連等之祖 天津久米命 此者久米直等之祖也 於是 詔之 此地者 向韓國眞來通笠沙之御前而 朝日之直刺國 夕日之日照國也 故 此地甚吉地 古128

天神之子 則當到筑紫日向高千穗總觸之峯 上149

(1) 천손 강림

일본 열도의 정복과 야마토 왕국의 수립과정은, 고사기 서문에 조심스럽고도 간결하게 요약이 되어있다. 즉, 니니기가 (큐우슈우 의) 타카치호 산봉우리에 강림을 하고, 이하레(진무)가 아키즈 섬을 지나 타카쿠라 라는 곳에 이르러, 하늘에서 내려준 칼을 받았다. 길을 가로막는 무리들을 물리치고, 타이우의 안내로 요시노를 향해 진격해 나아갔다. 열을 지어 적을 소탕하고, 천신과 지신을 모시면서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리니, 오늘날까지도 성군으로 칭송된다. 그 후손이 치카쓰 아후미 에서 다스릴 때, 경계를 정하고 토지를 개간했으며, 토호쓰 아스카 에서 다스릴 때, 씨족을 선별하고 조정의 지위를 나타내는 카바네를 바로잡아 주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신대 니니기 편과 인대 이하레(진무)편에 기록된 설화 같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369년 겨울] 호무다와 이즈세 일행은,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낙동강 하구에서, 탁순 사람들에게 미리 부탁을 해 준비를 시켜 두었던 크고 작은 선박들을, 오색 비단, 뿔로 만든 활과 화살, 쇳덩이 등, 후한 사례를 주고 인수했다. 각궁(角弓)은 소 힘줄과 소뿔로 만들었는데, 기병들이 사용하는 것이다(이도학 1995: 126). 내가 추정하는 호무다의 당시 나이는 30세.

다음해 [370년] 정월 맑게 개인 어느 날, 일행은 이곳 임나 출신의 경험이 풍부한 뱃길 안내자 사오네쓰 의 안내로, 쓰시마와 이끼섬을 거쳐 쓰쿠시(큐우슈우)로의 장정에 올랐다. [가정2.6] 고사기에 의하면 사오네쓰는 야마토 국조(國造)의 조상이 된다.

370년은 백제 13대 근초고왕(346-375년)이 즉위한지 25년이 되는 해이고, 신라 17대 내물 마립간(356-402년)이 즉위한지 15년이 되는 해이다. 전진(前秦)의 왕 부견

(符堅)은 낙양까지 점령했던 전연을 오히려 멀어버렸다. 고국 원왕은 도망을 해 온 연나라의 태부 모용평을 사로잡아 진나라로 보냈다. 드디어 선비족의 시달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는데, 뜻밖에도 바로 다음해에 평양성을 공격해 온 백제 근초고왕과 싸우다 화살에 맞아, 고국원왕은 그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치게 된다.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의 중심이 이탈리아로부터 소아시아와 발칸 반도로 바뀌고 있었다. 일찍이 로마제국을 잠시나마 동과 서로 분열시켰던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비극적인 종말(B.C.30)에서, 400년 후 비잔티움의 융성이 싹 튼 것이다. 이제 로마 군대가 사수해야 하는 최전선이 라인강에서 다뉴브강 하류로 옮겨지는 것이다.

북부 큐우슈우 에는 제법 평야도 있었으나, 기원전 3세기부터 삼한, 특히 가야지방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래해 정착을 했기 때문에, 잠시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것 같이 보였다. 큐우슈우의 남서부는 말라요-폴리네시아 계통의 종족이 또한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자연히 일행은 쓰쿠시의 동남부, 즉 지금의 미야자키 현의 휴우가 지방으로 향했다. 이 지역은 평지라고 할만한 땅도 적고 험준한 산악으로 둘러 싸여 있지만, 니기하야히(요속일)가 정착해 있다는 야마토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전에, 한두 해쯤 머무를 수는 있는 곳이었다.

호무다 와 이쓰세 일행이 제일 먼저 찾아 본 곳은, 히무카(휴우가)의 타카치호 의 소호리 산 봉우리였다. 소호리는 한국말로 “서울” 이라는 뜻이다. 호무다는 다카치호의 [해발 1756m] 쿠지후루 봉우리 위에 올라 말 했다: 이 곳은 한국을 마주본다(向韓國); 여기는 카사사 곳을 거쳐 곧장 도달한다. 이 곳은 아침 햇살이 곧바로 비치고, 저녁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땅이다. 이 곳은 참으로 상서로운 곳이다.”

오늘 날의 큐우슈우 동남부 지도를 놓고 보면, 국견산(國見山) 꼭대기가 해발 1739m, 조모산(祖母山) 꼭대기가 해발 1756m, 쿠쥬우 산꼭대기가 해발 1791m이고, 타카치호라는 명칭의 장소는 국견산과 조모산 사이의 계곡을 흐르는 하천 옆자리를 지칭하고 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한(韓)을 “카라” 라고 부르기

天降於日向襲之高千穗峯矣 上141

故天津彦根火瓊瓊杵根尊 降到於日向穗日高千穗之峯 上153- 155

裏皇孫天津彦根火瓊瓊杵根尊 而排披天八重雲 以奉降之... 于時 降到之處者 呼曰日向襲之高千穗添山峯矣 上161

三國史記 卷第四十一 列傳第一 金庾信 王京人也 十二世祖首露 不知何許人也 以後漢建武十八年壬寅登龜峰 望駕洛九村 遂至其地開國 號曰加耶 後改爲金官國 其子孫相承至九世孫仇亥(充) 或云仇次休 三下290

三國遺史 駕洛國記 開闢之後 此地未有邦國之號 亦無君之稱 越有我刀干 汝刀干 彼刀干 五 刀干 留水干 留天干 神天干 五天干 神鬼干 等九干者 是酋長 領總百姓 凡一百號 七萬五千人... 耕田而食 屬後漢世祖光武帝建武十八年... 所居北龜旨 有殊常聲氣... 又曰 皇天所以命我者 御是處 惟新家邦 爲君后 爲茲故降矣... 有黃金卵六... 而六卵化爲童子... 始現故諱首露... 國稱大駕洛 又稱伽耶國 卽六伽耶之一也 餘五人各歸爲五伽耶主 東以黃山江西南以滄海 西北以地理山 東北以伽耶山 南以爲國尾 遺183

卽自日向發 幸行筑紫故豐國宇沙之時 其土人 名字沙都比古 宇沙都比賣 二人 作足一騰宮而 獻大御饗... 亦從其國上幸而 於吉備之高嶋宮八年坐 故從其國上幸之時 乘龜甲爲釣乍 打羽舉來人 遇于速吸門... 問

汝者知海道乎 答曰能知...即賜名號
槁根津日子 此者倭國造等之祖 古
148

神武天皇 卽位前紀...天皇親帥諸皇
子舟師東征 至速吸之門 時有一漁
人 乘艇而至... 又問之曰 汝能爲我
導耶 對曰 導之矣...爲海導者 乃特
賜名爲**推根津彦** 此卽**倭直部始祖**也
行至筑紫國菟狹 時有菟狹國造祖號
曰**菟狹津彦** 菟狹津媛 乃於菟狹川
上 造一**柱體宮**而奉饗焉 是時 勅以
菟狹津媛 賜妻之於侍臣**天種子命**
天種子命 是中臣氏之遠祖也 上191

때문에 한국(韓國)은 “카라 쿠니” 로 읽는다. 삼국유사의 가
락국기와 삼국사기 김유신 조를 보면, 가야(加耶)의 시조 수
로는 서기 42년에, 하늘이 그에게 명해 나라를 세우고 임금
이 되라고 하였기에, 구지(龜旨) 봉우리에 내려와 가락(駕洛)
의 아홉 개 촌을 내려 보고, 그 곳에 나라를 세웠다 한다.

일본열도의 야요이 시대 600년 간(B.C. 300년-
A.D. 300년)이란, 논농사를 짓는 삼한 사람들의 이주 정착기
간이다. 이주민들이 삼한(三韓)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대부
분은 변한, 즉 가락의 9촌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韓)을
“카라” 라 부르게 된 것 같다. 이는 바로, 고사기와 일본서
기의 신대 건국신화 기록에, 가야의 건국신화 일부가 그 모
습을 약간 바꾸어 나타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호무다 일행이 히무카에 도착했을 때, 오래 전에 이
곳에 건너와 정착을 한 백제 이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던 것
같다. 첫 기착지를 히무카로 택한 것이 우연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훗날 우사 국조의 조상이 된 우사쓰 남매가 나타나
서, 우사 강둑에 높다란 기둥 하나를 세워 큰 천막을 치고,
일행을 위해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호무다는, 자신을
항상 가깝게 모시고 있는 아마타네 라는 부하에게 명하여 우
사쓰 처녀와 짝을 짓게 했다. 아마타네는 나카토미 우지(氏)
의 조상이 된다. “우지” 라는 표현은, 순수한 혈연관계라기
보다, 인간적인 울타리를 나타내는, 넓은 의미의 “씨족” 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미야자키 현의 휴우가 시로부터 곧바로 서
쪽을 향해 큐우슈우 산맥 속으로 40km 쯤 들어간 곳에, 백
제 마을(百濟里, 南鄉村) 이라고 부르는 고장이 있다. 그런데
흥미 있는 사실은, 이곳 주민 3천여 명의 대부분이, 21세기
가 된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자신들을 백제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을 들어 보면,
오랜 기간에 걸친 정치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왜곡은 되었
지만, 단순히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얘기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를 본다. 371년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왔다. 근초고왕이 군사를 패하 위에 잠복시켜 그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급습을 하니, 고구려 군사가 크게 패하여 달아났다. 그 해 겨울, 왕은 “태자” 수와 함께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다. 이때 고구려 고국원왕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근초고왕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용명을 떨치던 태자 수가 세운 무공의, 또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그 해, 도읍을 한산(한성)으로 옮겼다. 온조가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지 389년이 지난 때이었다.

한성에 도읍을 한 것은 371년부터 475년까지 105년간이지만, 하북 위례성, 하남 위례성, 한산, 한성 등이 모두 한강 주변의 인근 지역들이기 때문에, 나는 B.C.18년부터 475년까지의 시기를 모두 통 털어서 한성시대로 간주한다. 372년 봄 정월에, 사신을 동진(317-420년)으로 보내 조공을 하였다. 고기에 이르기를: “백제는 개국한 이래 문자로 기록을 한 일이 없다가, 이때에 이르러 박사 고흥이 비로소 서기를 편찬하였다.”

근초고왕(346-375년)이 즉위하면서부터 391년에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기는, 백제의 역동적인 팽창 시대였다. 국가나 개인 기업들도, 확장을 해 나갈 때에는, 모든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공격적이며 진취적으로 전환되는 것 같다. (대영제국의 전성기에 영국 사람들 개개인의 사고와 기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백제 사람들의 마한 합병과 야마토 왕국의 창건도 바로 이 전성시기에 이루어 졌던 것이다.

중국대륙을 본다. 4세기, 중국대륙은 바야흐로 오호 16국의 본격적 혼란기(316-439년)로 접어들게 된다. 서진 건흥 4년. 흉노 유료가 장안을 점령하고, 민제가 항복함으로써, 서진(266-316년)은 멸망했다. 서진의 사마에는 남쪽으로 내려가, 건강(남경)에 수도를 정하고 동진(317-420년)의 원제가 된다.

진서는 당나라 태종 때 방현령 등이 편찬한 동진의 정사이다. 이 진서의 간문제(371-372년) 2년 기록에 의하면, 372년 봄 정월에 백제왕이 사절을 보내 공물을 바쳤고, 6 월에는 동진 조정이 백제에 사신을 보내, 근초고왕(여구)을 진동장군으로 임명하고 (313년경에 축출된 낙랑군을 의미하

三國史記 卷 第二十四 百濟本記 第二 近肖古王 二十六年 高句麗舉兵來 王聞之伏兵於溟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 二十七年 春正月 遣使入晉朝貢...古記云 百濟開國已來未有以文字記事 至是 得博士高興始有書記 三下32

三國史記 卷 第三十七 雜志 第六 百濟...按古典記東明王第三子溫祚... 自卒本扶餘至慰禮城 立都稱王 歷三百八十九年 至十三世近肖古王 取高句麗南平壤 都漢城 三下233

晉書 卷九 帝紀第九 簡文帝 二年 春正月 百濟 林邑王各遣使貢方物 六月 遣使拜百濟王餘句爲鎮東將軍 領樂浪太守

既而天照大神... 命降之於**葦原中國**
是時...而臨睨之曰 彼地未平矣 不
須也**頗傾凶目杵之國**歟 上147
皇祖高皇產靈尊...遂欲立皇孫... 以
爲葦原中國之主 然彼地多有螢火光
神 及蠅聲邪神...故**高皇產靈尊** 召
集八十諸神 而問之曰 吾欲令撥平
葦原中國之邪鬼 當遣誰者宜也 上
135

二神 於時 降到出雲國 ... 而問大
己貴神曰 高皇產靈尊 欲降皇孫 君
臨此地 故先遣我二神 駮除平定 如
意何如當須避不 上139

故吾亦當避 如吾防禦者國內諸神
必當同禦 今我奉避 誰復敢有不順
者 乃以平國時所杖之廣矛 上141

素戔鳴尊 帥其子五十猛神 降到於
新羅國 **居曾尸茂梨之處** 乃興言曰
此地吾不欲居 遂以**埴土**作舟 乘之
東渡 到出雲國**簸川**上所在 鳥上之
峯...初五十猛神 天降之時 多將樹
種以下 然不殖韓地 ... 遂始自筑紫
凡大八洲國之內 莫不播殖而成青山
焉 上127

杉及**檉**...以爲浮寶... 而遂入於**根**
國者矣 上129

須佐之男命...降出雲國之**肥河**上 ...
於是 須佐之男命以爲人有其河上而
...老夫與老女二人在而 童女置中
泣...高志之**八俣遠呂智** 此三字以音
每年來喫 今其可來時故泣...每船盛
其八鹽折酒而待...於是飲醉留伏寢
...切散其蛇者...故取此大刀... 是者
草那藝之**大刀**也... 故其**櫛名田**比賣
以 久美度邇起而 所生神名 謂八嶋

는) 낙랑을 다스리는 태수(領樂浪太守)라는 칭호를 주었다. 371년에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고 또 고국원왕을 죽여 버린 사실을 전해 듣고, 낙랑을 다스린다(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근초고왕 27년(372년) 봄 정월에 사신을 진나라에 보내 조공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와 진서의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2) (진씨) 외가의 역할

진정은 자신의 외손자들을, 니기하야 가 말하는 그 갈대로 덮여있는 평원(아시하라)의 주인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당시 그 야마토 라고 부르는 지역은, 정착한 사람들의 절대적인 숫자는 적었지만, 사실 조용하다는 것과는 좀 인연이 먼 장소였다. 일본서기는 “보기에 소름이 끼치는 황폐한 나라”로 묘사를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시하라 평야에는 반딧불처럼 뻥 짝이는 귀신과, 파리 떼들처럼 소리 내며 몰려다니는 악귀 같은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진정은 자신의 외손자들을 그 갈대로 덮여있는 중앙의 평원으로 보내기 전에, 자기 자신이 좀더 손을 써 정지작업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충직하고 용맹한 가신 두 명을, 야마토의 서북쪽 방면에 위치한 해안 지대, 즉 신라 이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개척해서 살고 있다는 이즈모 지역으로 보내어, 최초의 신라계 지배자이었던 스사노오의 후손 오호쿠니누시와 협상을 하게 했다.

일찍이 신라 소시모리 땅에 살고 있던 스사노오는, 아들과 함께 무리를 이끌고, 삼나무와 녹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한국 땅을 떠났다. 그들 일행은 해류를 따라 동쪽을 향해 노를 저어, 신라 사람들이 근국(根國) 이라고 불렀던 이즈모로 건너갔다. 신라 (오늘날의 경상북도) 동해안에서, 난파선이 조류를 타고서 마냥 표류 해 가면 (보름 정도 후에) 도달하는 장소가 바로 시마네현(島根縣)의 이즈모 지역이다. 이

즈모는, 일본열도의 혼슈우에서, 옛 신라 이주민들이 서쪽으로 저 멀리 신라를 바라보았던, 서북부 해안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이즈모의 히강 상류 지역에는, 양민의 젊은 딸들을 탈취해 소굴로 끌고 가 잠시 데리고 살다가 죽여 버리고 마는, 8명의 흉악스럽게 생긴 악당들이 있었다. 이 곳에 당도한 스사노오는, 때마침 동네 어른인 노부부의 딸을 탈취하러 온 이 악당들로 하여금, 여덟 개의 술통에 가득 채운 술을 마시고 취해 잠들게 한 후, 한서(韓鋤) 검으로 모조리 목을 베어 버렸다.

악당 두목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앗아 보니 쿠사나기 라는 날카로운 대도였다. 악당들을 베어버린 칼은 한국에서 전래된 검이라 하여, 후에 이소노카미 신사에 안치되었다고 한다. 오호쿠니누시는 스사노오와 이들 노부부의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혹은 그의 6대 후손)이라고 한다. 스사노오의 후손들은, 본래 황량했던 이즈모 지역을, 한마음으로 뭉쳐 가지고 총력을 다 해 경영한 결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 편찬자들의 신라에 대한 증오심은, 이 신라계 개척자인 스사노오에 대한 서술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즉, 극악무도할 뿐 아니라 성격 자체가 잔혹하고, 맨 날 울면서 화를 내고, 남들이 봄에 파종한 땅 위에다 또 씨를 뿌리고, 남의 논둑을 무너뜨리고, 도랑을 메우고, 말을 내어 몰아 남의 논에 들어 눕게 하고, 가을에는 남의 땅에 말뚝을 박아 소유권을 주장하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에 가서 자리 밑에 똥을 싸놓고, 얼룩이진 짐승 가죽을 남의 집안으로 던져 넣어 베를 짜던 여인이 놀라서 북에 찢려 다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 동화책에 나오는 놀부를 뺨칠 정도로 못된 짓만 골라 해서, 도대체 나라를 다스릴 자질이 없는 자로 묘사되었다.

진정이 보낸 두 가신은, 당시 이즈모 지역의 실권자인 오호쿠니누시를 찾아가서 좋은 말로 설득을 했다: “우리 진정 어른께서는, 자신의 손자님들을 이 나라에 보내어 임금으로서 다스리게 하고 싶어하신다. 그래서 이 곳을 우선 평

士奴美神...娶...生子大國主神 亦名謂大穴牟遲神 牟遲二字以音 古84-90

素素彘命尊勅曰 若然者 汝當以女奉吾耶...及至得酒 頭各一槽飲 醉而睡 時素彘命尊 乃拔所帶十握劔 寸斬其蛇...中有一劔 此所謂草薙劔也 草薙劔 此云俱婆那伎能都留伎...然後...乃相與子合 而生兒大己貴神 上123

其斷蛇劔...此今在石上也... 素彘命尊 以爲妃而所生兒之六世孫 是曰大己貴命 大己貴 此云於褒姒娜武智 上125

素彘命尊 乃以蛇韓鋤之劔 斬頭斬腹 上127

大國主神...亦號國作大己貴命... 與...戮力一心 經營天下 上129

天照大神者 可以治高天原也...素彘鳴尊者 可以治天下也...雖然不治天下...乃逐之 上97 是性好殘害 上89 放天斑駒 使伏田中 ...方織神衣... 則剝天斑駒 穿殿覺而投納... 警動以梭傷身 上113 當新嘗之時...則於新宮御席之下 陰自送糞 上115 春則廢渠槽 及埋溝 毀畔 又重播種子 秋則捶籤 伏馬 凡此惡事 曾無息時 上117

速須佐之男命 不治所命之國而 八拳須至于心前 啼伊佐知伎也 自伊下四字以音 古72

天照大御神 坐忌服屋而 令織神御衣之時 穿其服屋之頂 逆剝天斑馬 剝而 所墜入時 天服織女見驚而 於

梭衝陰上而死 訓陰上云富登 古80

既而二神 降到出雲...而問大己貴神
曰汝將以此國 奉天神耶 以不 對曰
疑 汝二神 非是吾處來者故不須許
也 於是... 則還昇報告 時高皇產靈
尊 乃還遣二神 勅大己貴神曰 今者
聞汝所言 深有其理 故更條而勅之
夫汝所治顯露之事 宜是吾孫治之
汝則可以治神事 又汝應住天日隅宮
者 今當供造...又將田供佃...浮橋及
天鳥船 亦將供造...於是 大己貴神
報曰... 吾所治顯露事者 皇孫當治
吾將退治幽事 上151

于時 高皇產靈尊 以眞床追衾 覆於
皇孫...使降之 上141

神倭伊波禮毘古命 與其伊呂兄五瀨
命 上伊呂二字以音 二柱 坐高千穗
宮而議云 坐何地者 平聞看天下之
政 猶思東行 古148

神日本磐余彥天皇 ... 謂諸兄及子
等曰 昔我天神 高皇產靈尊 ...舉此
豐葦原瑞穗國 而授天祖彥火瓊瓊杵
尊 ... 是時 運屬鴻荒 時鍾草昧 ...
何不就而都之乎 上189

정하라고 우리 두 사람을 보내신 것이다. 그대는 어찌하려는
가? 우리 진정 어른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만약 오호쿠
니누시 자네가 협조를 해준다면, 비록 자신의 외손자들이 아
시하라 평원을 다스리게 되더라도, 단단하고 웅장한 궁궐을
지어서, 자네가 신사를 돌보며 만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각종 선박과 다리도 만들어 주고,
또 자네를 위해 쌀농사를 지어 주도록 하시겠다고 한다. 자
아, 이제 우리 앞을 가로막겠는가, 비켜서겠는가?”

오호쿠니누시는 대답 했다: “만일 내가 저항을 한
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틀림없이 저항을 할 것이다. 그
러나 내가 순순히 물러난다면, 다른 누가 감히 협조를 안 하
겠는가?” 그는 말을 마치고서, 스사노오가 이즈모를 평정할
때 쓰던 무기인, 날이 넓은 창을 가져다가 두 장수에게 주었
다.

진정이 보낸 이 두 가신들은, 이즈모 지역의 지도자
로부터 협조 약속 받아내, 흑시나 생길지도 모르는 후환을
원천적으로 제거했다. 진정은 그제야 비로소 호무다와 이쓰
세 에게, 야마토 지역으로 전진하라는 말을 전했다.

(3) 야마토를 향하여

타카치호의 임시 거처에서는, 이쓰세와 호무다가 의
논을 하고 있었다: “천하를 제패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
느 곳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여기 와서 직접
보아도, 외조부께서 말씀하시는 그 동쪽 지방이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 외조부는 그곳이 아주 비옥하다고 한다. 물론
아직은 황량한 땅이고, 무질서한 암흑세계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두 바로잡으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중권) 진무 편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20여 년에 걸친 호무다의 정복 과정을
재구성 해 본다.

372년, 근초고왕은 호무다 에게, 다른 여러 가지 매

우 귀중한 물건과 함께, 칠지도 라는 칼 한 자루와 칠자경 이라는 거울 한 개를 보내 주었다.

호무다 일행이 오늘날의 미야자키 현에 위치한 히무 카에 주둔하기 시작 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그 동안 호 무다와 이쓰세는 선단을 정비하고, 군량을 비축했다. 그들의 소망은 단숨에 천하를 평정하는 것이었다.

나라현의 텐리시에 있는 이소노카미 신궁 에는, 75cm 길이의 칠지도가 보관되어 있다. 칼의 양면에는 모두 61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7개의 글자는 판독이 불가능 하다. 그 내용은 “태△ 4년 [동진의 태화 4년, 즉 369년] △월 16일, 병오 날 정오, 백 번을 두들겨 단단하게 만든 철 로 이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 칼은 적군을 섬멸하는 (모든 무 기를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후왕 에게 출만하다. △△△△이 제작을 한 것이다. 예로부터 이와 같은 칼은 없 었다. 백제왕이 [근초고왕의 세자인 근구수가 부왕의 분부를 받고?] 왜왕을 위해 만들게 했으니, 후세에 전해 보여주기 바라다” 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백제 고분에서 출토된 쇠칼, 쇠도끼, 쇠 화살촉의 성 분을 분석해 보면, 모두 고탄소강이다. 섭씨 1,000도 내외에 서 뽑은 저탄소 연철 덩어리를, 다시 숯불로 오래 동안 가열 하면서 계속 두들기고 물속에 넣어 식히기를 반복하여, 내부 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탄소를 침투시켜 매끄러운 강 철을 만든 것이다. 백번을 두들겨 단단하게 만든 철이라는 표현이 뜻하는 바다.

[일찍이 369년, 마한 정복을 끝마친 근초고왕은 태 자 수와 함께 대군을 인솔하고 와서, 의류라는 마을에서 (목 라근자를 포함하는) 호무다 일행과 회동을 했다. 왕은 마한정 벌 과정에서 호무다가 인솔한 선봉대가 세운 공적을 치하했 다. 근초고왕은 일행을 데리고 고사산에 올라 천추만세에 걸 쳐 변치 않는 우정을 약속했다. 마침내 근초고왕 부자는, 가 야 지역을 거쳐 배를 타고 일본열도를 향해 떠나려 하는 이 들 원정군에게 축복을 내리며 작별을 고했다. 왕성으로 되돌 아간 근초고왕은 곧바로 세자 근구수를 시켜 칠지도를 만들 게 했던 것이다.]

神功皇后 攝政五十二年 久氏等 ...
則獻七枝刀一口 七子鏡一面 上359

石上神宮 七支刀銘文 泰[]四年[]
月十六日丙午正陽 造百練鐵七支刀
生辟百兵 宜供奉侯王[][][][]
作 先世以來未有此刀 百慈王世[]
奇生聖音 故爲倭王旨造 傳示後世

故從其國上行之時 經浪速之渡而泊青雲之白肩津 此時登美能那賀須泥毘古 興軍待向以戰...於是與登美毘古戰之時 五瀨命於御手負登美毘古之痛矢串 故爾詔 吾者爲日神之御子 向日而戰不良 故負賤奴之痛手 自今者行廻而背負日以擊期而...到紀國男之水門而詔 負賤奴之手乎死 男建而崩 ...故 神倭伊波禮毘古命 從其地廻行 到熊野 村之時 ...此時 熊野之高倉下 此者人名 貴一橫刀 古150

神武天皇 卽位前紀...至安藝國 ...徙入吉備國 起行館以居之...積三年間 脩舟楫蓄兵食 將欲以一舉而平天下也...皇師遂東... 方到難波之碕 會有奔潮太急 因以名爲浪速國 亦曰浪花 今謂難波訛也... 遶流而上 徑至河內國 上191

神武天皇 卽位前紀... 皇師勒兵 步趣龍田 而其路狹嶮 人不得并行 乃還更欲東踰膽駒山 而入中洲 時長髓彥聞之曰 夫天神子等所以來者 必將奪我國 則盡起屬兵...與之會戰 有流失中五瀨命肱脛 皇師不能進戰... 今我是日神子孫 而向日征虜 此逆天道也 不若 退還示弱 禮祭神祇 背負日神之威 隨影壓躡... 時五瀨命矢瘡痛甚 乃撫劍而雄詰之曰 慨哉 大丈夫 被傷於虜手將不報而死耶...進于紀國...而五瀨命薨... 至熊野荒坂津 ... 上193-195

[373년 말] 이쁘세-호무다 일행은, 마침내 수많은 선박에 올라, 내륙의 땅(야마토)으로 향해 나아갔다. 오늘날 히로시마 현의 아키군(安藝郡) 지역을 지나, 혼슈우의 첫 기착지인 키비(吉備)에 도착했다. 키비는 현재의 오카야마 현을 말한다. 키비에서, 이쁘세와 호무다는 원정군을 재정비하고, 좀더 많은 무기와 군량을 비축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렸다 [가정 2.7]. 백제의 서울 한성으로부터 가야 지역을 거쳐서, 선편으로 병사와 식량 등 인적, 물적 보급을 받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이다. 그래도 진정이 일찌감치 키비 바로 북쪽에 위치한 이즈모 땅의 신라계 토착세력의 협조를 확보 해 놓았기 때문에, 배후로부터의 적을 걱정 할 필요는 없었다.

[375년] 2월 11일, 드디어 대소 선박들이 꼬리를 물고 키비 땅을 떠났다. 나니하 곳에 이르러 보니 물살이 엄청나게 빨랐다. 이런 이유로 그곳을 나미하야 혹은 나미하나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후에 나니하 로 와전되었다. 오늘날 오오사카 시의 일부인 나니하에 도달한 일행은, 강을 곧장 거슬러 올라가, 현재 동 오오사카 시의 쿠사카(日下) 나루터에 도착했다.

여기서 이들이 배에서 내려 육로로 야마토 땅을 향해 가면서 보니, 길이 아주 험하고 좁기 때문에 한 줄로 서서 진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없이 되돌아 와서, 이코마 라고 부르는 산을 넘어가는 길을 택해, 또 다시 야마토 지역으로 접근해갔다. 그러자, 토착 세력의 우두머리인 나가스네 라는 자가, 호무다와 이쁘세 일행이 자신의 땅을 빼앗으러 온다고 생각하여, 자기 휘하의 군사들을 모조리 이끌고 싸우러 나섰다.

드디어 쿠사에 라는 곳에서 양군이 접전을 하게 되었는데, 전투 중에 이쁘세가 팔꿈치에 화살을 맞았다.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쁘세는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다: “일신의 자손인 우리가, 햇빛을 마주 보면서 싸움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도리를 거슬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저 천한 인간들한테 부상을 당한 것이다. 잠시 후퇴를 해서 천신과 지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 일신의 위세를 등에 업

고 햇빛을 따라 공격을 해야 할 것이다.”

야마토는, 오오사카의 카와찌(河內) 땅에서 보면,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쓰세와 호무다는 군사를 거두어, 뱃길로 남쪽으로 내려와, 오늘날 와카야마 시(和歌山市)의 키강(紀川) 하구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쓰세의 상처는 통증이 점점 심해 갔다. 이쓰세는 칼을 빼어 휘두르면서, “아아 어찌 대장부가 저런 야만인들의 화살을 맞고, 그 원수도 갚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는가” 라고 부르짖었다.

결국 이쓰세는, 배에서 내린 후 첫 번째의 육지전투에서, 토착 저항세력의 화살을 맞고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호무다가 원정군의 유일한 지휘자가 되었다.

(4) 정복자 호무다

[375년 가을] 백제의 서울 한성에서는 근초고왕과 진정이가, 원정군의 근황과 함께 이쓰세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걱정을 했다. 그들은 건어뢰를 불러 “지금 아시하라 현지 상황이 혼란 상태이고, 호무다 원정군 일행이 모두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속히 증원군과 보급물자를 보내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근초고왕은 또, 자신이 수많은 전투에서 애용한 칼인, 아주 사납게 생긴 횡도 하나를 호무다에게 전해 주도록 했다. 근초고왕은 바로 다음달인 11월에 서거했다.]

호무다가 근초고왕이 하사한 칼을 전해 받은 것은 [375년 말] 오오사카 만으로부터 빠져나와, 키이 물길(紀伊水道)을 거쳐 쿠마노의 타카쿠라 땅에 도달했을 때였다.

[왕명을 받아 건어뢰가 보낸 증원군 속에는, 팔지오라고 부르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워낙 야마토로부터 진정에게 니기하야히(요속일)의 소식을 전하려고 한성에 왔다가 그냥 놀러 앉아 살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니하, 가후치, 키, 야마토, 요시노 등의 주변 지리를 자기 손바닥처럼 훤히 알고 있었다. 작달막한 생김생김에 피부가 시커먼 것이, 꼭

天照大神 高木神...召建御雷神 而詔 葦原中國者 伊多玖藝帝阿理那理 此十一字以音 我御子等 不平坐良志 此二字以音 其葦原中國者 專汝所言向之國 故汝建御雷神可降 爾答曰 僕雖不降 專平其國之橫刀 可降是刀 此刀者 坐石上神宮也 降此刀狀者 穿高倉下之倉頂 古152

天照大神訓于天皇曰 朕今遣頭八咫鳥 宜以為鄉導者 果有頭八咫鳥 自空翔降 天皇曰 此鳥之來 ... 上197

於是亦 高木大神之命以覺白之 天神御子 自此於奧方莫使入行 荒神甚多 今自天遣八咫鳥 故其八咫鳥引道 從其立後應幸行 故隨其教覺從其八咫鳥之後幸行者 到吉野河 古152

故爾於宇陀有兄宇迦斯 弟宇迦斯二人 故 先遣八咫鳥問二人曰 今天神御子幸行汝等仕奉乎 於是兄宇迦斯...將待擊云而聚軍 然不得聚軍者...作大殿 於其殿內作押機待時 弟宇迦斯先參向 拜曰...爾大伴連等之祖道臣命 久米直等之祖 大久米命二人 召兄宇迦斯... 先入 明白其將為仕奉之狀而...追入之時 乃己所作押見打而死 古154-156

神武天皇 元年...神又給弟猾猛田邑 因為猛田縣主 是菟田主水部遠祖也 ...又頭八咫鳥 亦入賞禮 其苗裔 卽葛野主殿縣主部是也 上215

까마귀 모양이었다. 사람들도 팔지오를 까마귀라 불렀다. 진정은 호무다에게 팔지오의 도움을 받으라고 충고했다.]

고사기는, 내가 여기서 “진정” 이라고 쓰는 대목에, “타카기” 라고 쓰고 있다. 이 고사기 신대 기록들을 보면, 외가 쪽인 타카기가 친가 쪽인 아마테라스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야마토 왕국을 건설하는 실제 과정에서도, 외가 쪽인 진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근초고왕 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호무다 일행은 팔지오의 인도를 받아, 쿠마노 지역으로부터 내륙지방을 향해 진격했다. 팔지오는 일행에게 요시노 강을 따라 올라가게 했다. 이는 오늘날 나라현(奈良縣) 요시노 군의 요시노 가와를 의미하는 것 같다. 햇빛을 등에 지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우회한 다음, 강을 따르고 산을 넘어, 처음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한 것이다.

고사기에 의하면, 호무다 일행이 오늘날의 (와카야마현의 태평양 쪽인) 히가시무로 군의 신구우 시에 해당하는 쿠마노 까지 돌아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도를 놓고 보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와카야마 지역의 키이(紀) 강을 따라 올라가면 요시노 강에 훨씬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당시 쿠마노 라는 장소가 오늘날과 달랐든지, 혹은 전투반경 기록에 과장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

여기서 문득 연상이 되는 역사가 있다. 기원전 218년, 스페인을 출발한 한니발은 피레네 산맥을 넘고, 오늘날의 프랑스 남부 해안 지역인 마르세유를 거쳐, 론 강을 건넜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통로를 잘 알고 있는 갈리아 부족 지도자를 포섭해, 코끼리와 기병과 보병을 이끌고, 드디어 알프스를 넘어 북부 이탈리아 평원으로 내려왔다. 로마 성벽으로부터 4.8km 밖에 안 되는 곳까지 진격을 했으나, 본국 카르타고는 거의 아무런 지원을 해 주지 않았다. 스페인을 떠난 해로부터 15년이 지난 기원전 203년, 한니발은 결국 이탈리아를 포기해야만 했다. 호무다 원정군에 대한 백제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해 하는 대목이다.

오늘날 나라현의 우다군(宇陀郡)에 위치한 우다 지역에 이르렀을 때, 우카시 라는 자가 이끄는 무리를 만났다. 팔지오는 우카시 에게 호무다를 위해 싸워줄 것을 권유했다. 그는 팔지오의 권유를 따를 것 같이 대답을 하고 가더니, 오히려 군사를 모아 매복을 시켜놓고, 호무다 일행을 습격 하고자 했다. 하지만 군사들이 자기 생각대로 모아지지 않자, 그는 커다란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함정을 판 다음, 호무다를 유인해서 생포하려 했다.

우카시의 동생은 이를 보고 호무다 에게 몰래 알려 주었다. 호무다는 미찌 오미(道臣)와 오후쿠메(大久米) 두 사람에게 병사를 주어, 우카시를 처치하게 했다. 그 두 사람은 우카시에게, 그가 새로 지어 놓은 건물에서 호무다를 어떻게 대접을 할 것인지 보여 달라고 꼬인 다음, 제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도록 만들었다. 미찌 오미와 오후쿠메는 우카시를 잡아 죽인 다음, 무리들을 모두 쫓아버렸다.

후에, 미찌 오미는 야마토의 오후토모(大伴) 씨족의 시조가 되었고, 오후쿠메는 쿠메 씨족의 시조가 되었다. 우카시의 동생은 현주(縣主)가 되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팔지오가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라고 해 놓고서는, 그가 길을 안내한 공적으로 후에 포상을 받았으며, 그 자손들이 현주 노릇을 했다고 기록을 했다.

삼국사기를 본다. 근초고왕이 375년 11월에 서거하자, 태자 근구수가 백제의 15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376년, 근구수 왕은 자신의 장인 진고도를 내신좌평으로 삼아 정사를 맡겼다. 377년 겨울 10월, 근구수 왕은 몸소 3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379년 봄 3월에 사신을 동진으로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목적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되돌아왔다.

호무다 일행이, 오늘날의 나라현 사쿠라이시(櫻井市)의 오사카에 해당하는, 오시사까(忍坂)의 오후무로 땅에 도착했을 때, 평지에다 흙구덩이를 파고 살고 있는 쓰찌구모 증족의 전사들을 발견했다. 호무다는 이들을 모두 자신의 진중으로 초대한 다음, 부하를 시켜 음식을 대접케 하다가, 노래 소리를 신호로 해서 일제히 죽여 버렸다.

三國史記 卷 第二十四 百濟本記 第二 近仇首王...二年 以王舅眞高道爲內臣佐平 委以政事...三年 王將兵三萬 侵高句麗平壤城... 五年春三月 遣使朝晉 其使海上遇惡風不達而還 三下32

到忍坂大室之時 生尾土雲 訓云具毛 八十建 在其室... 故爾天神御子之命以 饗賜八十建... 聞歌之者 一時共斬 古156

日本 此云耶麻騰 上81
夜麻登(倭) 古162

神武天皇 卽位前紀... 倭國磯城邑
有磯城八十梟帥 又高尾張邑 或本
云 葛城邑也 有赤銅八十梟帥 乃使
椎根津彥 著弊衣服及蓑笠 爲老父
貌 又使弟猾被箕 爲老嫗貌 ...潛取
其巔土...老父老嫗... 二人得至其山
取土來歸...時勅道臣命 今以高皇產
靈尊 朕親作顯齋 顯齋 此云于圖詩
怡破毘 用汝爲齋主...勒兵而出 先
擊八十梟帥於國見丘 破斬之 上
201-203

乃顧勅道臣命 汝宜帥大來目部 作
大室於忍坂邑 盛設宴饗 誘虜而取
之...時我卒聞歌...一時殺虜 上203-
205

神武天皇 卽位前紀...皇師遂擊長髓
彥 連戰不能取勝... 時長髓彥 乃遣
行人...曰 嘗有天神之子 乘天磐船
自天降之 號曰櫛玉饒速日命 饒速
日 此云備藝波椰卑 是娶吾妹... 故
吾以饒速日命 爲君而奉焉 夫天神
之子 豈有兩種乎... 天皇曰 天神子
亦多耳... 還以所御天羽羽矢一隻及
步鞞... 長髓彥見其天表 益懷踧踖
然而凶器已構 其勢不得中休...饒速
日命 本知天神慙懃 唯天孫是與 且
見夫長髓彥稟性悞恨 不可教以天
人之際 乃殺之帥其衆而歸順焉 天
皇素聞饒速日命 是自天降者 而今
果立忠效則褒而寵之 此物部氏之遠祖
也 上209-211

야마토(倭) 땅에는, 시키 마을이란 곳에도 용맹한 괴수가 이끄는 무리들이 있었고, 타카오하리 마을이란 곳에도 아까가네 라는 괴수가 이끄는 무리들이 있었다. 호무다는 두 명의 부하들로 하여금, 늙은 할아버지와 노파로 변장을 하고 정탐을 해 오도록 하였다. 이 두 사람은 우선 시키 마을로 들어가, 아무한테도 의심을 받지 않고 동정을 살핀 다음 돌아왔다. 호무다는 쿠니미 언덕으로부터 이들을 기습 공격해 모두 죽여 버렸다.

그리고 나서 호무다는, 미찌 오미 에게 오호쿠메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커다란 집을 지은 다음에, 타카오하리 마을의 아까가네 무리들을 초대해서 주연을 베풀다가, 이들이 술에 취한 후, 노래 소리를 신호로 해서 모두 죽여 버리도록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호무다는 미찌 오미 에게 준비를 시켜, 외조부 진정의 명복을 빌기 위해 크게 제사를 올렸다. 근초고왕은 이미 375년 11월에 서거했다. 아마 진정도 그 후 얼마 안 있다가 죽었던 것 같다.

호무다는 이제 야마토 땅 한 복판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호무다의 군대는, 야마토 바닥의 토착 세력 우두머리인 나가스네를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번이나 전투를 벌였으나, 쉽사리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던 중, 나가스네가 홀연 사람을 보내어 호무다 에게 말을 전 했다: “일찍이 천신의 아들 [백제 사람] 한 분이, 하늘의 바위 배를 타고 이 곳에 내려와 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니기하야히 라고 합니다. 그 분은 내 누이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분을 주군으로 삼고 섬겨 왔습니다. 나는 오직 니기하야히 만이 천신의 아들 인줄 알고 섬겨 왔는데, 이제 당신이 또 천신의 아들이라고 하니, 도대체 천신의 자손들한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듣고, 호무다가 대답을 했다: “천신 역시 많은 자손들이 있다.” 나가스네가 호무다가 전달해서 보여주는 새 깃털 화살과 화살 통 등, 하늘나라[백제]의 증거물을 보니, 예전에 니기하야히 가 가지고 온 것들과 똑같았다. 나가스네는 점점 더 혼동이 되었다. 그러나 흥기들이 벌써 모

두 준비가 되어 있었고, 대세는 이미 싸움을 중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가스네는 자신의 본래의 그릇된 계획에 집착하여,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다.

니기하야히는 하늘이 천손에게 천하를 내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가스네의 무식하고 난폭한 성품으로 미루어 보아, 그에게 하늘과 인간[다시 말하여, 왕족과 신하]의 관계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죽여 버렸다.

나가스네를 죽여 버리고 난 후, 니기하야히는 자신의 일족과 병사들을 모두 이끌고 호무다를 영접하러 왔다. 호무다는 니기하야히가 백제에서 건너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일찍이 외조부 진정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가 이제 결정적인 시기에 충성스러운 봉사를 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칭찬해 주며 총애했다. 이 [백제 북부(물부?) 출신의] 니기하야히가 바로 야마토 땅의 모노노베 씨족의 시조가 되는 것이다.

야마토의 타카오하리 라는 마을에는, 그때까지도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쓰찌구모 무리들이 있었다. 이들은 몸통이 작고 손발은 긴 종족이었는데, 호무다의 군대가 칩녕쿨로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해서, 모두 죽여 버렸다.

타카오하리 라는 마을의 본래 이름은 카타위 이었다. 그런데 호무다가 시키 마을의 괴수가 이끄는 무리들을 무찔러 버리자, 뒤따르던 대군이 모여들어 그 땅을 가득 채웠다. 이런 사연 때문에 카타위 라는 이름이 이하레로 바뀌어 지게 되었다고 한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다.

하리마 땅 에는 끊임없이 싸워대는 180명의 두목들이 있었다. 호무다는 그들을 모두 쿠사에 라는 곳에다 몰아 넣고, 처형했다. 시체가 무서운 악취를 풍기고, 피가 강을 이루었다. 하리마 풍토기에 기록 되어있는 내용이다.

호무다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수많은 전투를 지휘 했을까 궁금할 때가 많다. 나는 일본서기가 묘사하는 아마테라스의 싸움에 임하는 모습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 본다: “머리카락을 묶어 올리고, 옷깃을 묶어 바지저고리 모양을 하고, 옥 장식을 머리와 팔에 감고, 화살 통을 등에 지고,

神武天皇 卽位前紀 ...又高尾張邑有土蜘蛛 其爲人也 身短而手足長 與侏儒相類 皇軍結葛網 而掩襲殺之 因改號其邑曰葛城 夫磐余之地 舊名片居 片居 此云伽哆韋... 逮我皇師之破虜也 大軍集而滿於其地 因改號爲磐余 或曰...磯城八十梟帥 於彼處屯聚居之 屯聚居 此云怡波瀾萎 果與天皇大戰 遂爲皇師所滅 故名之曰磐余邑 上211

播磨國風土記 品太天皇之世 播磨國之田村君 在百八十村君 而已村別 相關之時 天皇勅 追聚於此村 悉皆斬死 故曰泉江 其血黑流 故號黑川 風342

天照大神... 乃結髮爲髻 縛裳爲袴 便以八坂瓊之五百箇御統 纏其髻鬢 及腕 又背負千箭之鞞... 臂著稜威之高鞞... 急握劔柄... 上105

晉書卷九 帝紀第九 孝武帝十一年 夏四月 以百濟王世子餘暉爲使持節 都督 鎮東將軍 百濟王 代王拓拔珪 始改稱魏

三國史記 卷 第二十四 百濟本記 第二 流王 近仇首王之元子 母曰 阿爾夫人 繼父即位 秋七月 遣使入 晉朝貢 九月 胡僧摩羅難陀自晉至 王迎致宮內禮敬焉 佛法始於此 二年 春三月 創佛寺於漢山 度僧十人 三下32-33

景行天皇 二十五年 遣武內宿禰 令 察北陸及東方諸國之地形 且百姓之 消息也 二十七年 武內宿禰自東國 還之奏言 東夷之中 有日高見國 其 國人 男女并椎結身 爲人勇悍是 總曰蝦夷 亦土地沃壤而曠之 擊可 取也 上297

景行天皇 四十年 冬十月 枉道拜伊 勢神宮... 初至駿河其處 賊陽從之欺 曰 是野也 麋鹿甚多... 臨而應狩 ... 信其言 入野中而覓獸 賊有殺王之 情 放火燒其野 王知被欺 則以燧出 火之 向燒而得免 王曰 殆被欺 則 悉焚其賊衆而滅之 故號其處曰燒津 亦進相模 欲往上總... 時大鏡懸於王 船 從海路廻於葦浦 橫渡玉浦 至蝦 夷境 蝦夷賊首... 然遙視王船 豫怖 其威勢... 自扶王船而著岸 因以 俘 其首帥 而令從身也 蝦夷既平 自日 高見國還之 上305-307

왼쪽 팔뚝에 가죽 활팔씨(호무다)를 동여매고, 활의 끝을 세우고, 칼자루를 잡고, 두발로 힘차게 땅을 밟고, 신성한 목소리로 호령을 한다.”

각설, 진서 효무제 11년(382년) 4월조는, 백제왕 세자 여휘(근구수왕)를 사지절 도독 진동장군 백제왕으로 삼았다고 기록했다.

[383년] 호무다는 타케치를 동북 방면으로 보내 그곳 각 지역의 지형과 원주민들의 성향을 살펴오게 했다. 다음해, 타케치가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다: “동쪽에 있는 야만인들 중에서도 특히 포악한 에미시 족속들이 히타카미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정식 혼례도 치르지 않은 채, 남녀가 흙구덩이 속에서 혹은 동지 속에서 어울려 살고 있으며, 모두가 머리카락은 묶어서 세우고 몸에는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주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야 합니다.” 말라요 폴리네시아인 종족들 뿐 아니라, 아이누 종족들도 “문신” 하기를 좋아 했던 것 같다.

호무다는 에미시를 정벌하러 떠나는 길에, 이세 라는 곳에 신궁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호무다가 스루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사는 에미시 무리들은 복종을 하는 척 하면서, 자기네 고장의 들판에는 사슴들이 엄청나게 많으니 사냥을 하러 가자고 꾀어냈다. 호무다는 그 무리들이 하는 말을 믿고, 다음날 아침 그들과 함께 들판 한가운데로 사냥을 나갔다. 에미시 무리들은 호무다를 죽이려고 들판에 불을 질렀다. 호무다는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맞불을 놓아 화공을 피할 수 있었다. 호무다는 하마터면 속임수로 화를 당할 뻔 했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이 에미시 도적 떼들을 모두 태워 죽여 버렸다. 이런 이유로 그곳 이름이 야끼쓰 가 되었다.

그 후, 좀더 동북쪽에 있는 에미시 무리를 정벌하러 가기 위해, 호무다는 해로를 택했다. 호무다가 선두에서 타고 가는 배의 돛대 위에는 커다란 구리거울을 매 달아놓았다. 나루터에서 대항을 하려고 무리를 모아놓고 기다리던 에미시 두목들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고 눈부시게 광채를 반사하는 호무다 배의 위용을 보고 겁이 나서, 모두 무

기를 버리고 호무다의 배를 선착장으로 모셔 갔다. 호무다는 이들 에미시 두목들을 자신의 신하로 만들어 동방을 평정한 다음, 야마토로 귀환했다. 이 얘기는 (일본서기가 12대 왕이라고 하는) 케이코오 천황 조에 나온다.

삼국사기를 본다. 15대 침류왕은 근구수왕의 원자이며 어머니는 아이부인이라 한다. 근구수왕이 서거하자 384년에 즉위하였다. 가을 7월에 사신을 동진 조정에 보내어 조공을 하였다. 9월에 호승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오니, 왕이 대궐 안으로 맞이하여 예를 갖추고 극진히 공경하였다. 불법이 이로서 비롯되었다. 385년 봄 2월에 한산에 불사를 세우고, 승려 10명을 두었다.

[386년] 큐우슈우 남쪽 지역에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쿠마소 족들을 평정하기 위해, 호무다는 전함에 군사들을 가득 싣고 히무카 땅으로 왔다. 호무다는 쿠마소 무리들과 전면전을 벌리지 않고 평정을 할 방도가 없을까 궁리를 해보았다. 수소문을 해보니, 쿠마소 두목에게 예쁘게 생긴 딸이 하나 있다고 했다. 호무다는 금은보석으로 그녀를 꺾어내 유혹을 했다. 쿠마소 두목의 딸도, 대장부의 기개가 넘쳐흐르는 호무다를 보고는 금방 반해버렸다.

잠자리에 함께든 그녀는 호무다에게, 쿠마소 평정 때문에 크게 걱정 말고, 병사 두 명만 자기를 따라오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호무다의 부하를 데리고 자기 부친의 진중으로 돌아가, 독한 술을 준비해 자신의 부친이 취토록 마시게 한 다음, 몰래 그의 활시위를 끊어 놓았다. 이를 보고, 그녀를 따라 온 호무다 부하들은 쿠마소 두목을 죽여 버렸다. 덕분에 호무다는 손쉽게 그곳 쿠마소 무리를 진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호무다는 쿠마소 두목의 딸이 범한 반인륜적 불효 행위를 용서 할 수 없었다. 결국 호무다는 그녀를 사형시켜 버렸다. 이 얘기 역시 케이코오 조에 나온다.

그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쿠마소 두목이 있었다. 호무다와의 일전을 각오한 그는, 친족과 수많은 쿠마소 전사들을 한데 모아 크게 잔치를 벌이면서 단합을 꾀했다. 호무다는 용맹하면서도 아름다운 처녀같이 생긴 부하에게 명하여, 쿠마소 들의 잔치판에 잠입토록 했다. 그는 머

景行天皇 十二年 十一月 到日向國...議討熊襲...衆類甚多... 熊襲梟帥有二女 兄曰市乾鹿文... 於是 示幣欺二女 而納幕下 天皇則通市乾鹿文而陽寵 時市乾鹿文 奏于天皇曰...即令從一二兵於己 而返家以多設醇酒 令飲己父乃醉而寐之 市乾鹿文 密斷父弦 爰從兵一人 進殺熊襲梟帥 天皇則惡其不孝之甚 而誅市乾鹿文 上291-293

景行天皇 二十七年 十二月... 時熊襲有魁帥者 名取石鹿文...悉集親族而欲宴 於是 日本武尊 解髮作童女姿...入於川上梟帥之宴室 居女人之中...梟帥 感其童女之容姿...攀坏令飲戲弄 于時也更深入蘭 川上梟帥且被酒 於是... 刺川上梟帥之胸 上299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三 辰斯王
 近仇首王之仲子 枕流之弟 爲人強
 勇 聰惠多智略 枕流之薨也 太子少
 故叔父辰斯即位 三年春正月 拜眞
 嘉謨爲達率...六年九月 王命達率眞
 嘉謨伐高句麗 拔都坤城 虜得二百
 人 王拜嘉謨爲兵官佐平 三45

神武天皇 即位前紀... 自我東征 於
 茲六年矣 賴以皇天之威凶徒就戮
 雖邊土未清 餘妖尚梗 而中洲之地
 無復風塵 誠宜恢廓皇都 規摹大壯
 而今運屬屯蒙 民心朴素 巢棲穴住
 習俗惟常 夫大人立制 義必隨時 苟
 有利民... 經營宮室 而恭臨寶位 以
 鎮元元 上即答乾靈授國之德 下則
 弘皇孫養正之心... 觀夫畝傍山 畝傍
 山 此云宇禰摩夜摩 東南糧原地者
 蓋國之塙區乎 可治之... 天皇即帝位
 於糧原宮... 於畝傍之糧原也 上213

皇輿巡行 因登腋上嘍間丘而廻望國
 狀曰 妍哉乎國之獲矣 妍哉 此云鞅
 奈珥夜 上215

리를 풀어 처녀로 변장을 하고, 쿠마소 여인들 사이에 어울려 두목에게 접근했다. 두목은 그의 미모에 반해, 자신의 옆에 앉히고 술잔을 권하며 희롱을 하고 즐겼다. 밤이 깊어지자 쿠마소 전사들도 하나 둘 흩어지고, 두목은 점점 더 취해갔다. 이때, 그는 품속에 숨겨 두었던 칼을 꺼내, 두목을 찔러 죽였다. 다음날, 호무다는 잔치에 모였던 쿠마소 무리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큐우슈우 남쪽 전지역을 평정 한 호무다는, 바닷길을 택해 야마토로 귀환을 했다. 이 얘기 역시 케이코오 조에 나온다.

삼국사기를 본다. 16대 진사왕(385-392년)은 근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며, 침류왕의 아우로서, 사람됨이 용맹하고 총명하며 지략이 풍부했다. 침류왕이 즉위한 바로 다음해에 돌아가고, 태자 아신은 아직 어린 편이었기 때문에, 왕의 동생인 진사가 즉위한 것이다. 당시 진사왕은 호무다와 동년배로 40대 중반쯤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387년 봄 정월에 진가모를 등용하여 달솔로 삼았다.

(5) 새 왕국의 시조: 야마토의 이하레의 호무다

[390년] 호무다는 다음과 같이 말 했다: “우리의 동방 원정이 계속된 [17년] 동안에 사악한 무리들은 모두 소탕되었다. 변경 지방은 아직도 평정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중앙의 야마토 주변 땅에는 이제 아무 전쟁도 없다. 나는 이곳에 장대한 도읍을 건설하려 한다. 이곳 주민들은 미개한 면도 많지만, 본성이 소박하고, 내려오는 습속에 따라 행동을 하기 때문에, 큰 인물이 법과 제도를 확립하면, 정의가 반드시 따를 것이다. 나는 궁궐을 짓고 왕위에 올라,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왕국을 내게 내려 주신 하늘의 덕에 보답할 것이며, 왕실을 길이 하고, 온 누리에 바른 마음을 가꾸어 나갈 것이다. 저 우네비 산의 동남쪽에 위치한 카시하라 땅은 이 나라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도읍을 정하려 한다.”

호무다의 나이는 어느덧 51세. 호무다는 야마토의

이하레의 카시하라 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이 해가 야마토 조정의 치세 원년으로 간주된다. 일본서기는 호무다의 즉위 년도를 “경인(庚寅)년” 이라고 기록을 하고, 그 해가 270년이라 했다. 나는 호무다의 실제 즉위 년도가, 270년으로부터 정확히 120년 후인, 390년의 “경인년” 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다.

390년 9월, 백제 16대 진사왕(385-392년)은 진가모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진가모가 도곤성을 빼앗고 200명의 포로를 잡아 오니, 왕은 그를 병관좌평으로 삼았다. 신라는 17대 내물 이사금(356-402년)이 왕위에 오른 지 35년이 되는 해이다. 고구려는 18대 고국양왕(384-391년)의 재위 7년째. 계속 백제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 광개토왕이 등장하기 바로 1년 전 얘기다. 폭풍전야. 아직까지는 백제의 전성기였다.

390년은 동진(東晉) 효무제(孝武帝, 372-396년)의 재위기간으로, 당대의 시인 도연명이 아직 관리 노릇을 시작하기 전이다. 383년에 비수(淝水) 전투에서 동진 군대에게 대패한 전진(351-394년)이 멸망하기 직전이다. 인도 대륙에서는 힌두 예술과 문화를 꽃피게 한 굽타 왕조(320-520년)의 찬드라 굽타 2세가, 390년에 인더스강 하류의 사카 왕조(145-390년)를 정복하여 굽타 왕조의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유유럽에서는 390년에 로마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347-395년)가 테살로니카 주민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기독교는 국교로 승격되었고, 5년 후에는 로마제국이 완전히 동서로 갈라졌다. 일찍이 테오도시우스 1세는, 황제가 된 바로 다음해(380년)에, (당시 카파도키아 교부들이 완성한 교리인) 성부-성자-성신의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만 카톨릭 그리스교도로 간주한다는 칙령을 발표했다.

카시하라 라는 곳은, 오늘날의 나라현 카시하라 시의 동쪽 지역에 있다. 여기가 옛날 이하레 지역에 속한다. 현재 나라현의 지도를 보면, 나라 시 남쪽에 텐리 시가 있고, 그 남쪽에는 사쿠라이(櫻井)시가 있으며, 사쿠라이 시 남부의 서쪽에는 (옛 야마토 땅의 중심부인) 타카이치 군(高市郡)의

神功皇后 攝政三年 春正月 立譽田別皇子 爲皇太子 因以 都於磐余 是謂若櫻宮 上349

神武天皇 元年...初天皇草創天基之日也 大伴氏之遠祖道臣命 帥大來目部 奉承密策 能以諷歌倒語 掃蕩妖氣 倒語之用始起乎茲 上215

아스카 무라(明日香村)와 카시하라 시가 있고, 사쿠라이 시의 바로 남쪽에는 (역시 야마토에 속하는) 요시노(吉野)군이 있다.

그 어느 날, 순행을 나간 호무다는 언덕 위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며 말 했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가!”

호무다는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오호토모 씨족의 시조인 미찌 오미 에게, 비유를 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노래와, 알아듣기 힘든 주문(呪文)과 같은 도어(倒語)를 몰래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서는 미찌 오미 에게, 오호쿠메베 사람들을 데리고 이들 노래와 도어를 사용해서, 나라안의 요상한 기운을 말끔히 씻어 없애 버리도록 명령했다. 야마토 에서 도어의 사용은 이때부터 시작 된 것이라고 한다. 원시 사회에서는 주문과 노래의 역할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새 왕국을 한자로 “왜” (후에 “일본”)라고 쓰면서, “와” 가 아니라 “야마토” 라고 읽었다. 아마 위지 동이전에 나오는 큐우슈우의 “왜” 와, 일본열도를 통일 하게 된 야마토 지역의 왜 왕조를 구별하기 위해, 아예 “왜” 라는 글자를 “야마토” 로 읽기로 정한 것 같다. 하지만, 수많은 일본 사학자들은 지금 까지도 위지 동이전에 나오는 왜가, 큐우슈우가 아니라 애당초부터 야마토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보면, 현대 일본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내용의 고대사에 대한 수요가, 일본사회에서 끊임없이 아류의 공급을 창조하고 있는 것 같다.

(6) 이하레

일본서기에서는, 진무가 타카오하리 라는 곳에서 쓰찌구모 들을 크게 무찌르자, 그 땅의 이름이 이하레(磐余)가 되었다고 한다. 신공왕후 섭정 3년 조는, 호무다(譽田)가 그 해에 태자로 되었기에, 도읍을 “이하레” 에 정했다고 말했다. 이하레 라는 지역은 오늘날 나라현 사쿠라이 시의 중심

부로부터 아스카를 지나 카시하라 시의 동부에 걸쳐있는 (우네비 산 동남쪽의 카시하라 궁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고사기에 의하면 야마토 왕국 시조의 공식 명칭이 카무(神) 야마토(倭) “이하례(伊波禮)” 이었다. 나는 이제 “진무의 칭호” 뿐만 아니라, “호무다의 도읍지” 이름에서도 나타나는 “이하례” 라는 표현을 분석해 보려 한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주몽이 부여로부터 도망을 해 왔을 당시에는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비류수 언저리(渾江邊 桓仁)에 적당히 집을 짓고 나라를 세웠다. 그 후, 왕위를 계승한 유리명왕은 “국내 위나암” 을 시찰한 다음, 서기 4년에 국내(國內)로 도읍을 옮기고 위나암(尉那巖) 성을 쌓았다고 한다. 그곳은 산이 험준하고 물이 깊으며, 땅이 오곡을 심기에 알맞고 물고기가 풍부해, 백성들이 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도 좋은 곳이라고 기록을 했다.

백제본기에 의하면 시조 온조왕은 한수 북쪽 “위례(慰禮)” 성에 도읍을 정하였다가, 기원전 5년에 한수 남쪽 “위례” 성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한다. 이 “국내 위나암 성,” “하북 위례성,” “하남 위례성,” 등의 기록들을 보면, 고구려의 “위나암” 과 백제의 “위례” 라는 것은, 왕이 거쳐하는 도읍지 즉 “왕성” 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처럼 사용이 된 것 같다.

북사(北史)는, 백제 사람들이 왕도를 거발(居拔)이라고 한다고 기록을 했다. 그런데 “있을 거” 라는 한자의 훈독은 “이” 이기 때문에, 백제 사람들은 “거발” 이 아니라 “이발” 로 읽었을 것이다. 이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차돈(異次頓)을 거차돈(居次頓)이라고도 쓰지만, 읽기는 이차돈이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사례이다.

주서(周書)에 의하면, 백제에서는 왕을 어라하(於羅瑕)라고 불렀다 한다. 따라서, “이하례” 란 왕 또는 왕성을 의미하며, “어라하,” “이발,” “위례,” “위나암,” 등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즉, 호무다는 야마토 왕국 세우고 나서, 백제와 고구려에서의 “왕” 또는 “왕성” 의 명칭인 “어라하,” “이발,” “위례” 혹은 “위나암” 을 본 따

三國史記 卷 第十三 高句麗本記 第一 始祖東明聖王...而未違作宮室 但結廬於沸流水上居之...三上261

三國史記 卷 第十三 高句麗本記 第一 琉璃明王 二十一年... 至國內 尉那巖 見其山水深險 地宜五穀 又多麋鹿魚鼈之產 王若移都 則不唯 民利之無窮 又可免兵革之患也 ... 二十二年 冬十月 王遷都於國內 築 尉那巖城 三上262

三國史記 卷 第二十三 百濟本記 第一 百濟近濟始祖溫祚王...溫祚都河南慰禮城...十三年... 巡觀漢水之南 ...宜都於彼 以圖久安之計...移慰禮城民戶...遣使馬韓告遷都... 三下16

周書 卷四十九 列傳第四十一異域上 百濟 百濟者 其先蓋馬韓之屬國 夫餘之別種...王姓夫餘氏 號於羅瑕 民呼爲 韃吉支 夏言竝王也 妻號於陸 夏言妃也

北史 卷九十四 列傳 第八十二 百濟...其都曰居拔城 亦曰固麻城

景行天皇 四年 夫天皇之男女 前後并八十子 然除日本武尊 稚足彥天皇 五百城入彥皇子之外 七十餘子 皆封國郡 各如其國 故當今時 謂諸國之別子 卽其別王之苗裔焉 上287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六 義慈王 十七年 春正月 拜王庶子四十一人 爲佐平 各賜食邑 下87

2.8].

일본서기와 고사기는, 시조라는 진무의 명칭에 “야마토 이하레” 라고 “이하레” 를 삽입했다. “야마토의 왕” 이라는 뜻 일 것이다. 신공왕후 섭정 3년 조는, 호무다 와께 (譽田 別) 왕자가 그 해에 태자로 되었기에, 도읍을 “이하레” 에 정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왕성” 을 의미 할 것이다. 결국 야마토 왕국 시조의 공식 명칭인 카무(神)야마토(倭)이하레(伊波禮)는 모두 수식어일 뿐이고, 그 속에는 사람의 실명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다. 즉, 호무다 라는 실명을 넣어야만, “야마토의 왕 (혹은 야마토에 왕성을 세운) 신성한” 호무다 라는, 새 왕국을 창건한 시조의 완전(*complete*)한 명칭(*full name*)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와께(別)라는 명칭의 유래를 보자. 일본서기 케이코 4년 조를 보면, 왕자와 왕녀가 모두 합해 80명에 달했다. 그 중 태자와 2명의 왕자를 제외한 70여명을 모두 각 지방의 고을에 봉해(皆封國郡) 내려 보냈는데, 이제 각 지방의 “와께” 라는 것(諸國之別者)은 모두 그 별왕들의 후예라는 것이다(其別王之苗裔).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17년 정월 조를 보면, 의자왕은 자신의 서자(庶子)들 41명을 모두 좌평으로 삼고 각기 식읍을 주었다(各賜食邑)라는 기록이 나온다. 백제식 봉건제도인 것이다.

(7) 언어와 의사소통 문제: 어휘와 문장구조

현대 언어학자들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어휘적으로 (*lexically*) 또 음운론적으로(*phonologically*) 본다면 거리가 좀 있지만, 형태론적으로 (*morphologically*) 또 구문론적으로(*syntactically*) 본다면 세상에 이들보다 더 친근 관계에 있는 언어는 없다고 한다. (Unger, 2001 참조) 쉽게 말하자면, 형태론이란 어휘 자체가 형성되는 패턴을 연구하는 것이고, 구문론이란 어휘로부터 문장이 형성되는 패턴을 분석하는 문법학의 한 부분이다.

기원전 3세기 경부터, 한반도에서 쌀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던 삼한 사람들, 특히 동남 해안 지방에 가까운 변한(가야) 사람들이, 큐우슈우 북부지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혼슈우의 서부 지방에 이르기까지, 소규모 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주를 하여, 일본 땅에 야요이 쌀농사 시대가 전개되도록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혼슈우의 대부분은 아이누 선주민들이 차지하여 수렵과 채취의 생활을 했었고, 큐우슈우의 남서 지방은 대부분 쿠마소라 부르는 말라요-폴리네시아 선주민들이 어류와 조개 등의 채취를 위주로 한 생활을 했었던 것 같다.

부여-고구려-백제 사람, 마한-진한(신라)-변한(가야) 사람, 그리고 큐우슈우로 이주해 간 가야 사람들은, 어휘의 (방언적) 차이는 있을망정 모두 동일한 문법체계를 가진 알타이 계통의 한 언어를 사용했던 것 같다. 한반도로부터 일본열도로 건너간 삼한(주로 가야)사람들은 큐우슈우 북쪽 지역으로부터 혼슈우를 향해 논농사와 새로운 토기를 사용하는 야요이 시대 600년을 전개했다. 이들은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선주민들과 어울려 고구려-백제 계통의 알타이 문법체계를 가진 일본어 조어(祖語)를 만들었다.

4세기 말, 백제 사람들이 새삼 대규모로 일본열도에 진출할 무렵, 일찍이 B.C. 3세기경부터 큐우슈우로 이주하기 시작했던 가야 사람들은, 이미 (오늘날 혼슈우의 오오사까-나라 지역인) 키나이까지 진출을 해 있었다. 이들 큐우슈우-키나이에 정착한 가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는, 야요이 600년간에 걸친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종족들과의 (한정된 공간 속에서의) 일상적인 접촉과 혼혈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새 정복자인 백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전혀 못할 정도로 어휘가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지금부터 천 육백여 년 전, 형이상학적인 대화보다는 단순하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위주로 하는 대화에서, 500개 내지 1,000여 개의 어휘만 서로 알아들으면, 한반도에서 새로 건너온 백제 사람들과 일본열도에 오래전에 정착한 가야 사람들 상호간에 의사소통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구문론적으로 보아 문장구조(語順)가 완전히 일치했

기 때문에, 일찍이 가야 지역에서 일본 땅으로 이주해서 선주민들과 어울려 야요이 시대를 전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가, 비록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어휘의 차용으로 예컨대 절반쯤 달라졌다 해도, 대충 눈치를 보면서 백제 사람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 사이의 언어상 의사소통 문제는, 천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주 현저하게 달라진 어휘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문장구조의 상이성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천년 전이나 바로 지금 이 시간이나,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장구조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현대 한국사람 혹은 일본 사람이 구사하는 문장 틀에다가, 상대방의 어휘만 바꾸어 넣으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구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각기 나름대로 “간소화”된 기타의 문법도, 동일한 알타이어 계통으로서 아주 비슷한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기문(1972: 32-38)은, 백제 지배층의 언어는 고구려 말과 같은데, 고구려어는 분명히 알타이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어 특히 일본어와 가장 가까운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다. 이기문에 의하면, 고구려어[즉 백제어]와 일본어의 분리 년대가 그다지 오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빙하기 때에 일본열도로 건너와서, 대륙과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 살아온 고대 아이누 족과 언제인가부터 남방에서 건너온 말라요 폴리네시아 종족들의 언어가 어떠한 문법체계를 가진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예컨대 아이누 족 역시 투르크-몽골족이고 그들의 언어가 과연 알타이어 계통인지도 알 수가 없다. 어쨌든 간에, 아이누와 말라요 폴리네시아 선주민들의 언어가 현대 일본어에 남긴 흔적은 주로 (차용된) 어휘와 발음규칙에 한정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애당초 문법 체계라는 것은 차용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믿어진다.)

일본어의 음절(音節)은, 예컨대, 카-르, 칼, 각 등의 음절이 “카”로 변화해, 모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마도 변한(가야) 계통의 언어가 일본열도에 상륙했을

때, 아이누 혹은 말라요-폴리네시아 언어의 음절이 모두 모음으로 끝난 사실에 영향을 받아, 그들이 본래 사용하던 언어에 이와 같은 변화를 새삼 일으키게 된 것이 아닐 가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후에 상륙한 부여-고구려-백제 계통의 언어도 이미 토착화 된 변한(가야) 언어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방식으로 변화를 일으켰을 수 있다. (이기문, 1972: 24-25 참조) 문법체계라는 것은 차용이 안 된다는 사실과,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선주민들이 구사했었을 언어를 염두에 두고 보면, 현대 언어학자들이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어휘적으로 또 음운학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서기를 보면, 당시 신라나 고구려 사람들도 신생 야마토 조정에 와서 불편함이 없이 대화를 하기 위해, 어느 정도 풍속언어와 발음습관의 연습, 즉 습언(習言)은 필요했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계통의 언어를 구사하는 중국 사람을 대할 때처럼 통역(譯語)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812년 이전에는, 의사소통을 위해, 이들 사이에 통역이 필요했다는 기록을 한군데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

백제가 멸망한지 150년. 일본후기(日本後紀) 812년 조에는, 최초로, 신라 사람과 언어가 통하지 않고(言語不通), 통역(新羅譯語)이 필요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당시의 신라어와 일본어는 형태론적으로 또 구문론적으로 보면 동일한 언어이었지만, 어휘상으로 또 음운론적으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 버린 것이다. 문법은 처음부터 차용의 여지가 없이 가야-신라어와 친족관계인 고구려-백제어를 본 받았지만, 어휘는 애당초 아이누-폴리네시아 선주민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日本後紀 卷二十二 太上天皇 嵯峨弘仁三年春正月 甲子 勅 大宰府去十二月廿八日奏云 對馬嶋言 今月六日 新羅船三艘 浮□西海 俄而一艘之船 著於下縣郡佐湏浦 船中有十人 言語不通 消息難知 其二艘者 暗夜流去 未知所到 七日船廿餘艘 在嶋西海中 燭火相連 於是遂知賊船 仍煞先着者五人 五人逃走 後日捕獲四人... 仍申送者 爲問其事 差新羅譯語 ...

(8) 잉글리쉬 와 저어먼

5장에서 잠시 소개를 한 영국 얘기를 계속해 볼 가 한다. 서기 900년경, 대니쉬 바이킹이라는 노오스멘(북쪽 사

람)들이, 후에 노어만디(노오스멘의 땅)라고 부르게 된 프랑스 서쪽 해안 지방을 빼앗고 정착을 했다. 그들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토착화되어, 곧 프랑스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서기 1066년, 노어만디의 윌리엄 공작은 잉글랜드 정복에 나섰다. 그는 해스팅스에서 벌어진, 1만 2천여 명이 참가한 단 한차례의 전투에서, 웨섹스의 해롤드 백작을 완전히 격파했다. 당시 잉글랜드는 중앙집권적 통일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침략군에 대한 저항이 조직적으로 이루지지 않았다. 윌리엄은 산발적인 저항을 하나씩 분쇄하고, 잉글랜드에 노어만 왕조를 세웠다. 그가 바로 “정복자 윌리엄”인 것이다. 그는 토착 지배층의 영지를 몰수하여, 180명의 노어만 추종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노어만-프렌취는 300여 년 간 정복자에 의해 공식 언어로 사용되었고, 앵글로-색슨 잉글리쉬는 무지한 피정복 농민들이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 하지만 현대 잉글리쉬의 문법체계는 근본적으로 저어머닉 계통이고, (프렌취 같은) 로만스 계통은 아니다.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복자 언어의 문법체계가 피정복자 언어의 문법 체계까지 정복 할 수는 없었다. (물론 크게 본다면, 유럽 북부의 저어머닉 언어나 남부의 로만스 언어나 모두 인도-유럽어 언어 계통에 속한다.) 잉글리쉬의 문법체계가 비록 근본적으로 저어머닉 계통이지만, 현대 저어먼과 현대 잉글리쉬의 문장구조는 상당히 다르다. 아마 “정복자 윌리엄”이 노어만-프렌취가 아니라 당시의 저어먼 이었다면, 아주 다른 결과가 생겼을 것이다. 즉, 현대 저어먼과 잉글리쉬 사이에, 현대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의 관계와 유사한 현상, 즉 문장구조는 완벽하게 일치하고 어휘만 크게 다르다는 현상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Unger (2001) 같은 언어학자는,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부여계통의 백제사람을 노어만에 비교하면서도, “정복자 노어만”에 상응하는 “정복자 백제인”이라는 말을 하지를 못한다.

Chapter 7 begins at 157.